



#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 Global Infectious Disease Outbreak Update

### 요약

#### 1. 덴기열, 여러 국가 Dengue Fever in Multi-country

'25년 4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덴기열 발생은 전 년 동 기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일부 국가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덴기열 위험 국가 방문 시 덴기열 예방수칙 숙지 필요

- '25년 4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덴기열 발생은 전년 동 기간 대비 71% 감소한 상황임
  - 대부분의 발생이 보고되는 미주지역도 전년 동 기간 대비 71% 감소 및 최근 5년 평균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가장 많은 덴기열 발생 보고 국가인 브라질도 전년 동 기간 대비 75% 감소함
  - 아시아 지역의 경우 베트남은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10% 감소하였으나 필리핀은 전년 동 기간 대비 75% 증가함
- 美CDC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덴기열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덴기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1단계(Practice Usual Precautions) 여행건강경보를 발령함(5.22.)
- '24년 1월 12일부터 전체 13개 공·항만 국립검역소에서 입국자 중 유증상자 및 희망자 대상 무료 덴기열 신속키트검사 연중 실시 중으로 질병관리청은 여행 전 과정에 걸쳐 덴기열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검역소 덴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

#### 2. 백일해, 미주 Pertussis in Americas Region

WHO/PAHO 미주지역 내 백일해 발생 급증 보고 및 감시 강화와 백신 접종률 제고 촉구

- 미국, 멕시코, 브라질을 포함한 미주지역 국가에서 백일해 지속 발생 보고 중
  - 미국('25년 18주 기준)에서는 백일해 환자 10,062명 발생 보고(사망 5명), '24년에 이어 2년 연속 유행 지속 중임
  - 멕시코('25년 19주 기준)는 943명 발생(사망 51명)하여 이는 '16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전체 발생 환자의 절반 이상이 1세 미만(51.1%), 1~4세는 13.4%였음
  - 브라질의 경우, 상파울루를 포함한 주요 도시지역 중심으로 총 1,634명 발생(사망 5명)하였으며, 가정 및 어린이집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음
  - WHO/PAHO는 미주지역 국가별 백일해 감시체계 강화, 특히 1세 미만 영유아 입원환자 관리 철저, 어린이 예방접종을 세분화 모니터링으로 3회 접종률 완료 95% 이상 달성, 산부인과 종사자 및 영유아 보호자 백신 접종, 확진자 격리치료 철저 등 백일해 예방조치를 촉구함
- '25년 국내 월간 백일해 환자는 감소 추세이며, 학령기 아동 대상 예방접종 적극 권고, 백일해 유행지역 방문 시 손위생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권고
  -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외 고위험군(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 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도 백신접종 권고

### 3. 코로나19, 전 세계 COVID-19 in Multi-country

**전 세계 검사 양성률이 11%로 증가함(WHO, '25.5.11.기준), 유행지역 여행 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준수 및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적극 참여 권고**

- WHO '25년 5월11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검사 양성률 증가 보고
  - 전 세계 검사 양성률은 11%로 이는 '24년 7월 측정 최고치(12%)와 유사하며 주로 동지중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증가 중, 또한 NB.1.8.1.변이가 서태평양, 미주, 유럽지역에서 증가 추세를 보임
- WHO는 최근 상승 중인 NB.1.8.1가 다른 유행 변이에 비해 공중보건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언급, 유행지역 여행 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준수 및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적극 참여 권고

### 4.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캄보디아 Avian influenza human infection in Cambodia

**캄보디아에서 '25년 네 번째 조류인플루엔자(AI) A(H5N1)형으로 인한 11세 소년 사망 보고**

- 캄보디아 캄퐁스테우주에 거주하는 11세 소년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을 동반한 중증 상태로 병원 도착 후 사망(5.27.), 조사 결과 환자의 증상이 발현되기 약 일주일 전 집 근처에서 키우던 가금류(닭, 오리)가 병들어 폐사된 것으로 밝혀짐
  - ※ '25년 캄보디아 AI 인체감염 발생 현황: H5N1형 4명 발생(4명 사망)
- 캄보디아 보건당국은 ▲지속적인 조사 및 대응, ▲의심 사례 및 접촉자 추적, ▲밀접 접촉자 대상 항바이러스제 배포, ▲환자 발생지역의 주민 대상 보건교육 캠페인 등 실시하고, 대중에게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고
-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AI 인체감염이 보고된 적은 없으나 해외에서는 조류 등에 의한 인체감염 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야생조류, 가금류, 길고양이 등의 사체, 분변 등에 가급적 접촉자제를 권고함. 특히,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자는 살처분 이후 10일 이내 결막염, 발열, 근육통,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 권고

# 1. 뎅기열, 여러 국가 Dengue Fever in Multi-country

## 발생 상황

'25년 4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뎅기열 발생은 전년 동 기간 대비 71% 감소한 상황으로 대부분의 발생이 보고되는 미주지역도 전년 동 기간 대비 71% 감소, 최근 5년 평균 대비 13% 감소함. 가장 많은 뎅기열 발생 보고 국가인 브라질도 전년 동 기간 대비 75% 감소하였고, 아시아 지역의 경우 베트남은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10% 감소하였으나 필리핀은 전년 동 기간 대비 75% 증가가 보고됨

### ■ 전 세계

- '25년 4월까지 전 세계에서 의심 사례 2,532,929명(확진 976,840명) 발생 보고(사망 1,305명, 치명률 0.05%), 전년 동 기간(의심 사례 4,972,605명) 대비 71% 감소함<sup>1)</sup>

- WHO 지역별로는 미주 지역(94.20%), 동남아시아 지역(2.47%), 서태평양 지역(2.23%), 아프리카 지역(0.71%), 동지중해 지역(0.39%), 유럽 지역(0.001%) 순으로 발생함\*

\* 미주 지역(2,386,144명), 동남아시아 지역(62,491명), 서태평양 지역(56,436명), 아프리카 지역(18,032명), 동지중해 지역(9,808명), 유럽 지역(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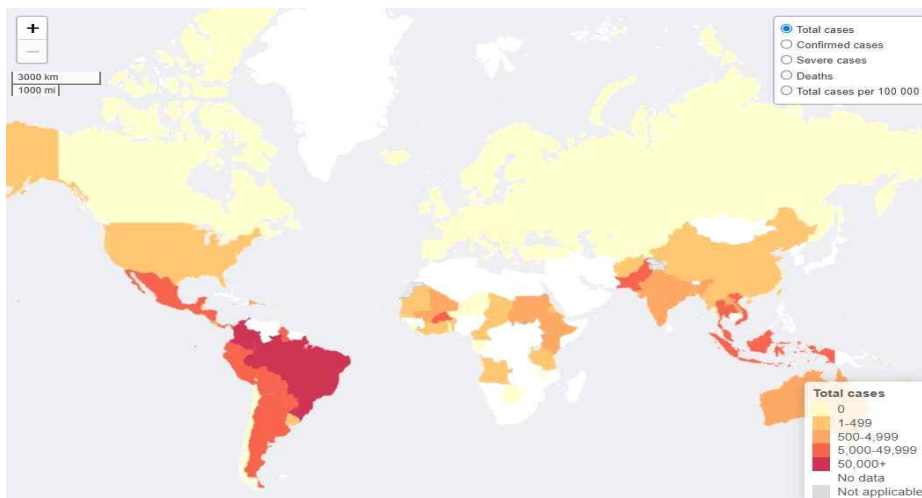


그림 1-1. '25년 전 세계 뎅기열 발생 분포 현황 (WHO/HQ, '25.5.15.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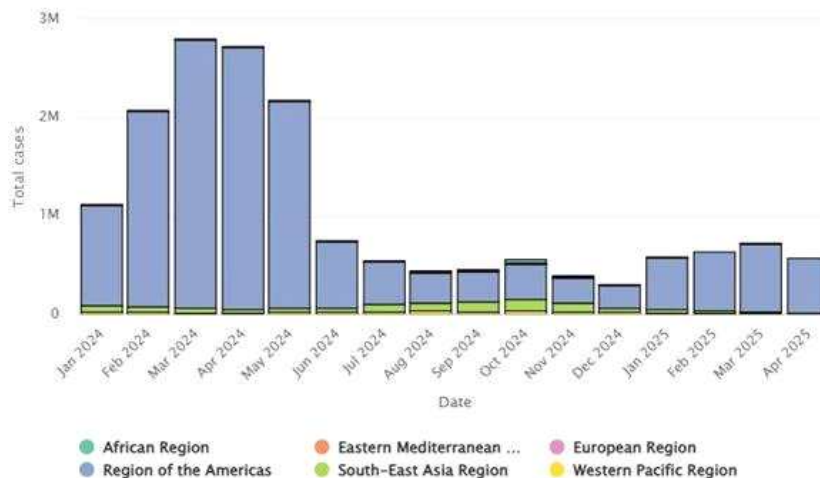


그림 1-2. '24~'25년(4월) 전 세계 뎅기열 WHO 지역별 발생 현황 (WHO/HQ, '25.5.15.기준)

### ■ 미주지역 (WHO/PAHO)

- 대부분의 뎅기열 발생이 보고되는 WHO 미주지역은 '25년 초부터 12주까지 완만한 발생 증가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5년 19주까지 발생이 전년 동 기간 대비 71% 감소, 최근 5년 평균 대비 13% 감소함<sup>2)</sup>
  - '25년 19주 기준, 누적 의심 사례 2,755,110명 발생(확진 1,096,668명), 중증 사례 3,490명(0.1%), 사망 1,160명(치명률 0.042%) 보고되어 누적 발생률이 10만 명당 271명임
  - '25년 19주차에는 미주지역 12개국에서 의심 사례 123,799명 발생, 사망 10명(치명률 0.006%)이 보고됨. 환자의 91.2%(112,891명)가 브라질에서 보고됐고, 그 다음으로 콜롬비아(2.3%), 페루(1.6%), 멕시코(1.5%), 볼리비아(0.9%) 순임. 최근 4주 평균 발생 대비 멕시코와 가이아나에서만 발생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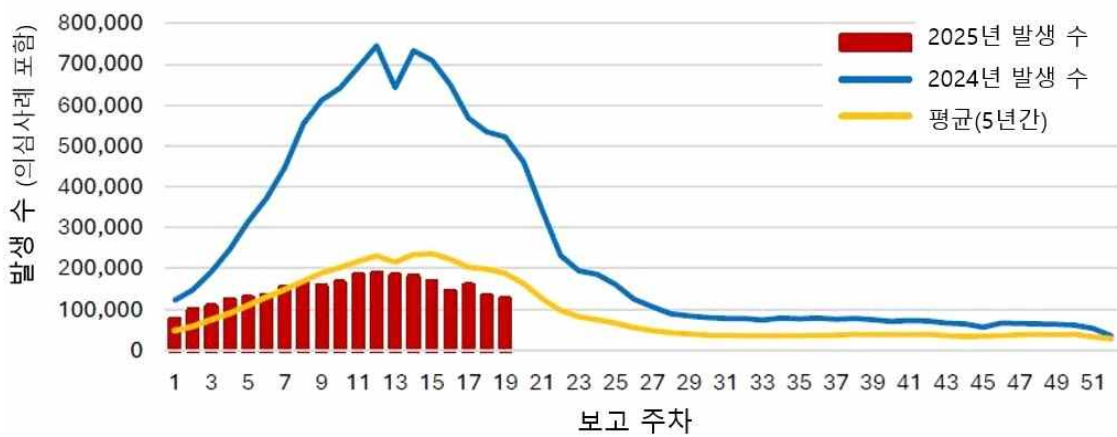


그림 1-3. '24~'25년 미주지역 주차별 뎅기열 발생 현황과 최근 5년간 평균 (WHO/PAHO, '25.5.29.)



그림 1-4. 최근 4주 평균 대비 '25년 19주차 미주지역 뎅기열 사례 증가 또는 감소 국가 (WHO/PAHO, '25.5.29.)

### - 브라질

- 브라질 보건부는 '25년 4월 19일까지 뎅기열 발생이 전년 동 기간 대비 75% 감소, 사망자 수는 83% 감소하였다고 보도함. 현재까지 확진자는 107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 400만 명에 비해 감소, 사망자는 742명으로 전년 동기간 3,800명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는 보건부가 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한 조치와 주민들을 동원한 결과라고 보도함<sup>3)</sup>

- '25년 4월 5일 기준 브라질 뎅기열 발생의 73%와 사망자의 86%가 상파울루주, 미나스제라이스주, 파라나주에 집중됨. 브라질 보건부는 뎅기열 퇴치 및 중증사례와 사망자 감소를 위해 뎅기열 전파율이 높거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312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이 중 114개는 상파울루주, 42개는 미나스제라이스주, 28개는 파라나주에 위치함
- 브라질 보건부는 감시, 진단 및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실험실 진단 및 매개체 방제에 필요한 물품 외에도 680,000개 신속 진단 키트를 배포하였으며 보건부의 지원을 받는 국가 실험실인 LACENs은 65만 건 이상의 실험실 검사를 함. 뎅기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제공 및 보건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종사자 훈련을 착수함

■ 필리핀

- 필리핀 정부는 뎅기열 발생이 '25년 3월 10~11주 12,050명에서 3월 12~13주 9,289명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보건부가 모기 번식지 제거 캠페인을 신속하게 시행한 결과라고 발표함. 또한, 정부의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뎅기열 발생 시 조기에 진료받도록 장려했고 그 결과 치명률(0.36%)이 낮아졌다고 보도함('25.5.2.)<sup>4)</sup>
-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필리핀 보건부는 '25년 초부터 누적 뎅기열 사례가 약 95,000명이라고 보고했으며, 이는 전년 동 기간 대비 75% 증가한 수치임<sup>5)</sup>
- 필리핀 정부 캠페인으로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매일 오후 4시에 모기 번식지가 될 수 있는 곳을 청소하도록 권장하며, 청결 유지 및 장마철 시작에 대비를 촉구하는 보건부의 권고를 강조함

■ 베트남

- '25년 20주차에 확진자 1,037명(사망 없음) 보고되어 전 주(649명) 대비 59.78% 증가함. '25년(5.18.기준) 누적 확진자 20,832명, 사망 5명 보고되어 전년 동 기간 대비 누적 확진자 수는 약 10%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1명 증가함<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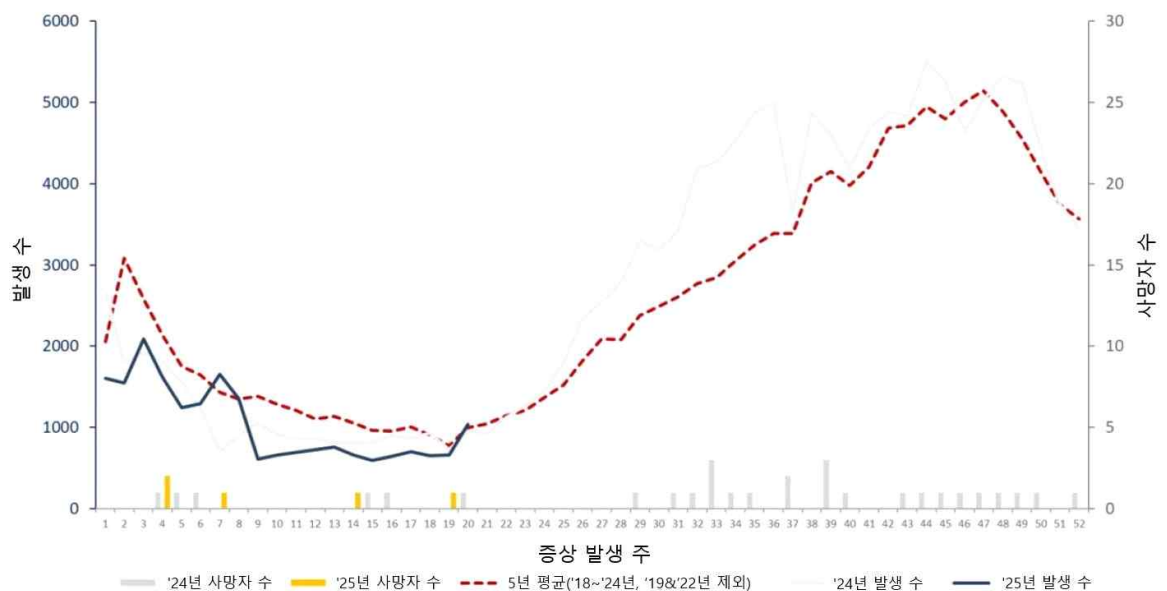


그림 1-5. '24년 대비 '25년(5.18.기준) 베트남 주별 발생 및 사망자 수 현황 (WHO/WPRO, '25.5.29.)

## 상황 평가

- '24년 대비 '25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뎅기열 발생이 감소하였으나, 일부 국가에서 많은 발생이 보고되어 美CDC는 1단계(Practice Usual Precautions) 여행건강경보를 발령함(5.22.)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해외여행 활성화로 '22년부터 뎅기열 환자 유입이 증가 추세이고 '24년도에는 196명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함
- '24년 1월 12일부터 전체 13개 공·항만 국립검역소에서 입국자 중 유증상자 및 희망자 대상 무료 뎅기열 신속키트검사 연중 실시 중으로 질병관리청은 여행 전 과정에 걸쳐 뎅기열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검역소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

- '24년 대비 '25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뎅기열 발생이 감소하였으나, 미주지역 및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 많은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 및 보건부가 모기 서식지 제거 캠페인 시행, 진단검사키트 지원 등 대응 조치 중임
- 美CDC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뎅기열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뎅기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1단계(Practice Usual Precautions) 여행건강경보를 발령함(5.22.)<sup>7)</sup>
  - \* (평소보다 많은 뎅기열 감염 사례를 보고하고 있거나, 美CDC가 해당 국가에서 귀국하는 미국 여행객에서 예상보다 많은 뎅기열 감염 사례를 확인한 국가) 브라질, 콜롬비아, 코모로, 쿠바, 에콰도르, 피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과들루프, 과테말라, 이란, 멕시코, 파나마, 필리핀,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수단, 통가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해외여행 활성화로 '22년부터 뎅기열 환자 유입이 증가 추세이고 '23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증가, '24년도에는 196명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함
- '24년 1월 12일부터 전체 13개 공·항만 국립검역소에서 입국자 중 유증상자 및 희망자 대상 무료 뎅기열 신속키트검사 연중 실시 중으로 질병관리청은 여행 전 과정에 걸쳐 뎅기열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검역소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sup>8)</sup>

1) WHO Global Dengue Surveillance ('25.5.15)

2) WHO/PAHO Report on the Epidemiological Situation of Dengue of Americas, week19 ('25.5.29)

3) Brazil MOH expands priority actions to comb dengue fever in cities across the country(Outbreak News Today '24.10.13.)

4) Philippine President Communication Office, News Release, Palace: Gov't keeps close watch on dengue despite drop in new cases ('25.5.2.)

5) The Philippines Dengue Cases Increase 75% (Vax Before Travel News, '25.5.2.)

6) WHO/WPRO Dengue Situation Update ('25.5.29.)

7) Travel Health Notices, Global Dengue, Level 1(Practice Usual Precautions) (美CDC, '25.5.22.)

8) 보도참고자료 | 해외여행 후 검역소에서 뎅기열 무료 검사 받으세요 (질병관리청, '24.1.12.)

## 2. 백일해, 미주 Pertussis in Americas Region

### 발생 상황

'24년에 이어 '25년에도 미국 등을 포함한 미주지역에서 백일해 지속 발생 보고 중이며, 미국에서는 10,062명 발생 보고되어(사망 5명) '24년에 이어 2년 연속 유행 지속 중임. 멕시코('25년 19주 기준)는 943명 발생(사망 51명)하여 이는 '16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이외 브라질 등 주요국에서 '24년 대비 백일해 발생 증가 보고<sup>1)</sup>

- WHO/PAHO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후 '23년부터 미국을 포함한 미주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백일해 발생 사례가 증가했으며\*, '25년에도 지속 유행 중이라고 보고함  
\* ('22년) 3,283명 → ('23년) 4,139명 → ('24년) 43,751명(잠정)
- 미국은 '25년(18주 기준) 백일해 환자가 총 10,062명\* 발생함(사망 5명). '24년(약 35천명)에 이어 2년 연속 유행 지속 중임. 주요 발생 연령대로는 11~19세(31%)와 1~6세(24%)였으며, 사망 사례는 주로 1세 미만 영유아(4명)에서 보고됨  
\* (주별 발생현황) 워싱턴(1,067명), 오리건(723명), 캘리포니아(590명) 등 순
- 멕시코는 '16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25년(19주 기준), 총 1,634명 확진 및 사망 51명 보고함. 백일해 환자 절반 이상이 1세 미만(51.1%)에서 발생했고 1~4세는 13.4%를 차지함
- 브라질에서는 '25년(19주 기준) 백일해 환자가 총 1,634명, 이 중 5명 사망 보고함. 주요 발생 연령대로는 1세 미만(28%)과 1~4세(25%)였음. 어린이집과 가정 내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발생 보고가 있었음
- WHO/PAHO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주지역 국가들의 백신접종률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며, '21년에는 DTP(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1차 접종률이 87%, 3차 접종률이 81%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23년에는 각각 90%, 88%로 소폭 회복되었으나 국가 간 및 국가 내 지역 간의 접종률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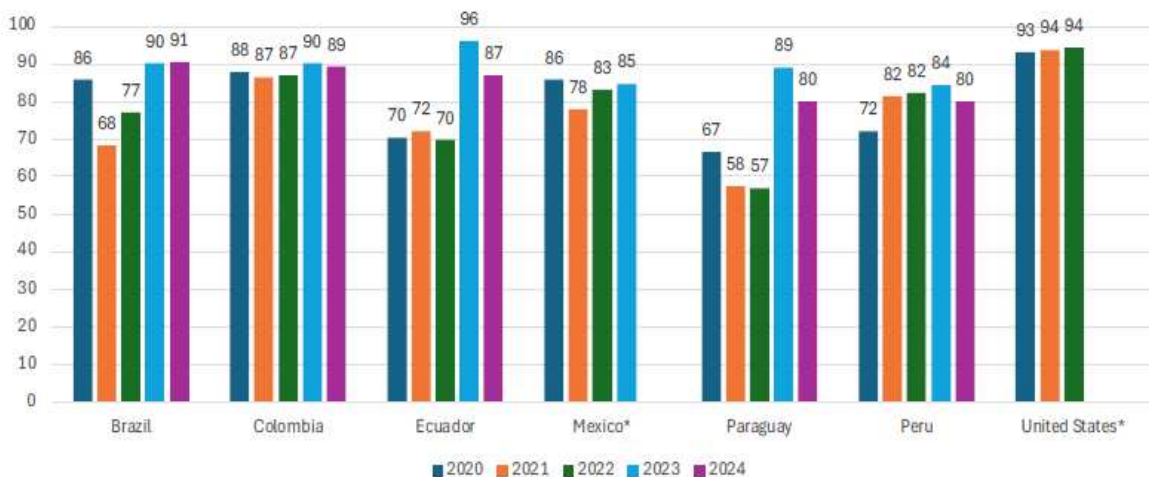


그림 2-1. 미주지역(미국 포함 7개 국가) '20~'24년 백일해 예방접종률(DTP3) 현황 (WHO/PAHO, '25.5.31.)

### 상황 평가

- WHO/PAHO는 백일해 발생 감시 강화, 1세 미만 영유아 입원환자 관리 철저, 어린이 예방접종을 세분화 모니터링으로 3회 접종률 완료 95% 이상 달성, 산부인과 종사자 및 영유아 보호자 백신 접종, 확진자 격리치료 철저 등 백일해 예방조치를 촉구함

- '25년 국내 월간 백일해 환자는 감소 추세이나 학령기 아동 대상 예방접종 적극 권고, 백일해 유행지역 방문 시 손위생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권고

※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외 고위험군(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백신 접종할 것을 권고

- WHO/PAHO는 백일해 발생 감시 강화, 1세 미만 영유아 입원환자 관리 철저, 어린이 예방접종을 세분화 모니터링으로 3회 접종률 완료 95% 이상 달성, 산부인과 종사자 및 영유아 보호자 백신 접종, 확진자 격리치료 철저 등 백일해 예방조치를 촉구함

- '25년 국내 백일해 발생 수는 현재(6.4.)까지 지속 감소\*하는 추세<sup>2)</sup>이나 학령기 아동 대상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 백일해 유행지역 방문 시 손위생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권고<sup>3)</sup>

※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 받는 것이 중요하며, 그 외 고위험군(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도 백신 접종할 것을 권고

\* (1월) 2,280명 → (2월) 899명 → (3월) 382명 → (4월) 330명 → (5월) 31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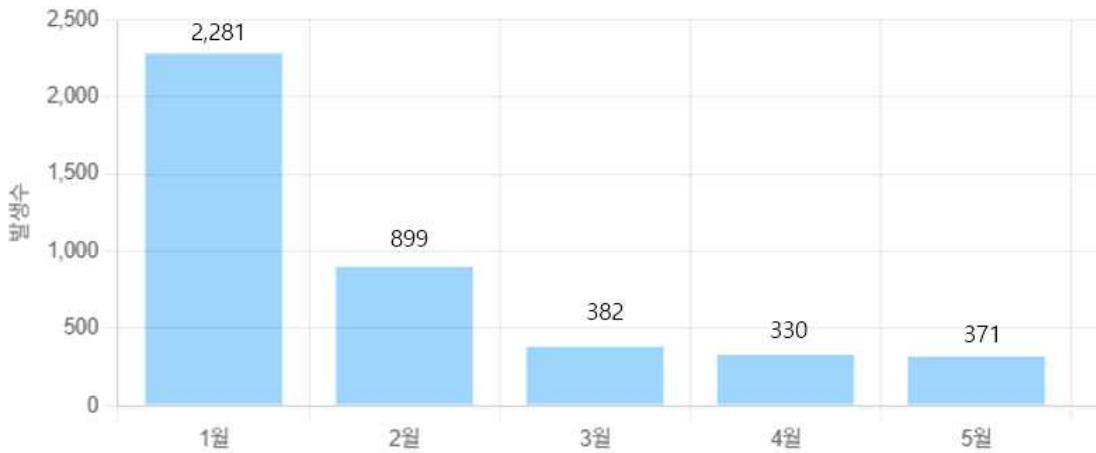


그림 2-2. '25년 국내 백일해 환자 수(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 '25.6.4.)

1) Epidemiological alert | Increased pertussis in the Americas Region (WHO/PAHO, '25.5.31.)

2) 감염병포털 | 감염병통계 | 백일해 (질병관리청, '25.6.4.)

3) 보도자료 | 백일해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임신부, 영유아 돌보미 등 예방접종 적극 당부 (질병관리청, '24.11.12.)

### 3. 코로나19, 전 세계 COVID-19 in Multi-country

#### 발생 상황

'25년 5월11일 기준, 전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 시스템(GISRS)에 보고된 73개국 지역의 표본 감시기관 검사 양성률은 11%로 주로 동지중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에서 증가 중. 변이 바이러스는 4월 중순 이후 NB.1.8.1의 검출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서태평양, 미주, 유럽지역에서 해당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가 확인됨

- '25년 5월11일 기준, 전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 시스템(GISRS)에 보고된 73개국 지역의 표본 감시기관 검사 양성률은 11%로 '24년 7월 측정된 최고치(99개국 12%)와 유사하며, '25년 2월 중순 110개국에서 보고된 2%보다 증가한 수치임<sup>1)</sup>. 양성률은 주로 동지중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증가했고, 아프리카, 유럽, 미주지역에서는 2~3%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특히 미주지역 카리브해와 안데스 지역('25.5.11.기준)은 검사 양성률 증가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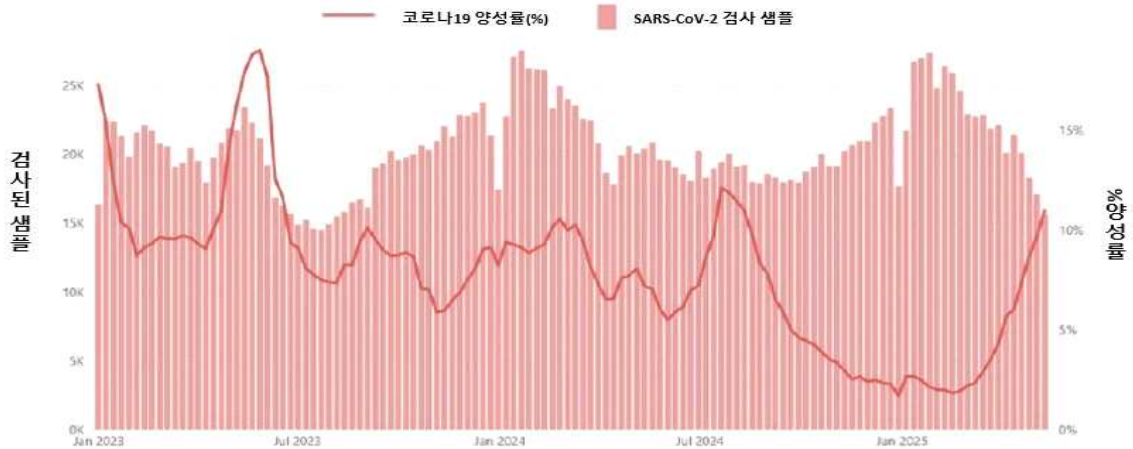


그림 3-1. '23년 1월~'25년 5월 전 세계 표본 감시기관 기준 코로나19 검사 건수 및 양성률 (WHO, '25.5.28.기준)

- 동지중해 지역(12개국) 검사 양성률은 역학 13주 4%에서 역학 17주 17%로 증가한 후 19주 15%로 감소함. 이집트,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등 6개국에서 검사 양성률이 증가함



그림 3-2. '24~'25년 동지중해 지역 코로나19 검사 건수 및 양성률 (WHO, '25.5.28.기준)

- 동남아시아 지역(8개국) 검사 양성률은 4월 초 이후 역학 15주 0.5%에서 역학 19주 5%로 증가함. 양성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24년 동기기간과 비슷하게 증가 추세를 보임(역학 15주 4%→19주 6%). 지역 내 몰디브와 태국에서 검사 양성률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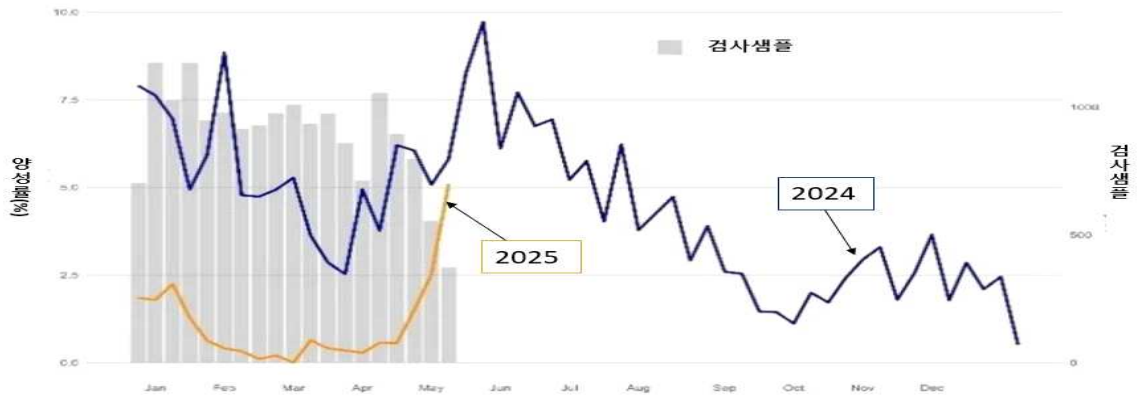


그림 3-3. '24~'25년 동지중해 지역 코로나19 검사 건수 및 양성률 (WHO, '25.5.28.기준)

- 서태평양 지역(10개국) 검사 양성률은 역학 14주 5%에서 역학 19주 11%로 증가함. '25년 첫 10주 동안 감소 추세였으나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작년('24년 역학 18주 10%)과 유사한 수준임. 캄보디아, 중국, 홍콩, 싱가포르 4개국 및 지역에서 검사 양성률 증가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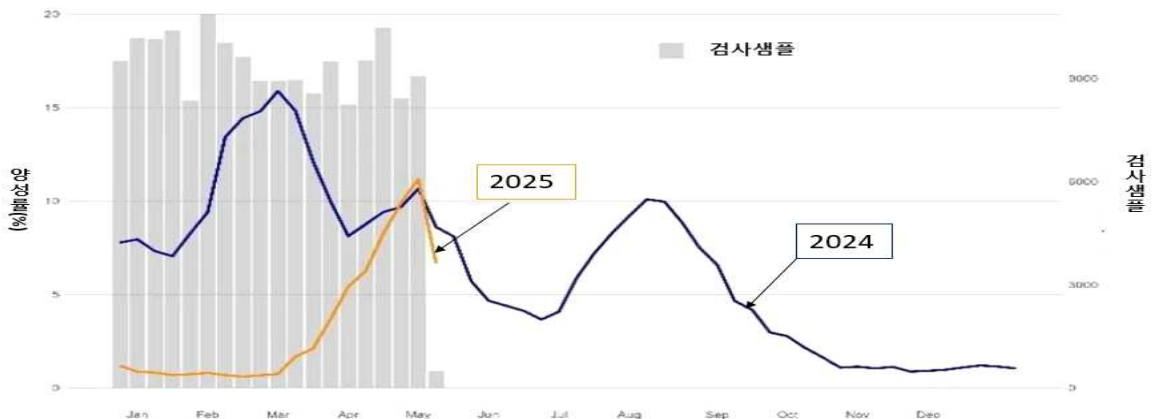


그림 3-4. '24~'25년 서태평양 지역 코로나19 검사 건수 및 양성률 (WHO, '25.5.28.기준)

- '25년 초 주요 변이는 XEC였으나 2월 들어 XEC는 감소하고 LP.8.1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3월부터 점유율이 가장 높음, 4월 중순 이후 NB.1.8.1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LP.8.1은 소폭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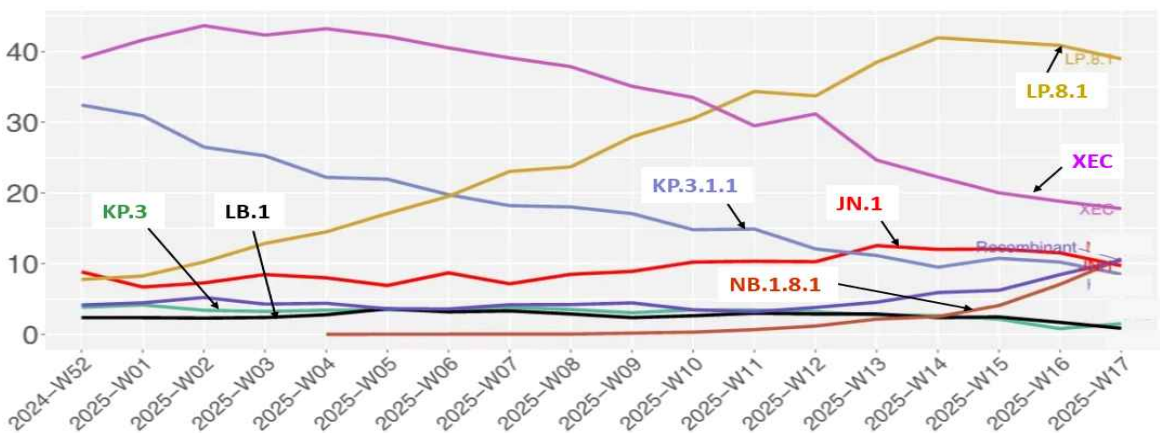


그림 3-5. '25년 1월~5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 현황 (WHO, '25.5.28.기준)

- NB.1.8.1는 최근 지정된 모니터링 대상 변이(VUM)로 XDV.1.51.의 하위 변위이며, XDV.1.5.1은 JN.1의 하위변이임, NB.1.8.1(역학 14-17주)는 3개 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서태평양 지역은 8.9%에서 11.7%로, 미주지역은 1.6%에서 4.9%로, 유럽지역은 1.0%에서 6.0%로 증가함

### 상황 평가

- WHO는 전 세계 공중보건 위험 평가를 ‘높음’으로 평가 유지함, 최근 서태평양지역, 동남아시아, 동지중해 지역에서 발생 증가 추세이며 최근 상승 중인 NB.1.8.1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공중보건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언급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 준수,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관계자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의심 또는 확진 시 외출 자제 등이 중요하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 권고
- 최근 WHO는 코로나19 관련 전 세계 위험평가(‘24.7월~12월)를 ‘높음’으로 평가하였으며, 현재 ‘25.1월~6월 위험평가는 준비 중임. 검사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성률이 상승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감시와 변이 모니터링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강조
- 또한 현재 발생은 서태평양지역, 동남아시아, 동지중해 지역 중심으로 증가 추세이며 최근 상승 중인 NB.1.8.1이 다른 유행 변이에 비해 공중보건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언급
- 질병관리청<sup>2)</sup>은 유행국가 여행시 ▲손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고함

1) Disease Outbreak News COVID-19-Global situation (WHO, '25.5.28.)

2) 인접국가 코로나19 증가세, 고위험군 백신 접종 적극 당부 (질병관리청, '25.6.2.)

## 4.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캄보디아 Avian influenza human infection in Cambodia

### 발생 상황

캄보디아에서 올해('25년) 네 번째 조류인플루엔자(AI) A(H5N1)형으로 인한 11세 소년 사망 보고  
 ※ '25년 캄보디아 AI 인체감염 발생 현황: H5N1형 4명 발생(4명 사망)

- '25년 캄보디아에서 네 번째 AI A(H5N1)형 감염 사례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됨<sup>1)2)</sup>
- 해당 사례는 캄보디아 중남부 지역의 캄퐁스테우(Kampong Speu)주에 거주하는 11세 소년으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을 동반한 중증 상태로 병원 도착 후 사망함(5.27.)
  - 캄보디아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실시한 검체 검사 상 H5N1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양성 확인(5.27.), 아직 세부 계통은 밝혀지지 않음
- 조사 결과, 소년의 증상이 발현되기 약 일주일 전에 집 근처에서 키우던 가금류(닭, 오리)가 병들어 폐사된 것으로 확인됨
- 국가 및 지방 보건당국의 비상대응팀은 지역 보건당국 등과 협력하여 AI 발생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 및 대응, ▲의심 사례 및 접촉자 추적, ▲밀접 접촉자 대상 항바이러스제 배포, ▲환자 발생 지역의 주민 대상 보건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함<sup>2)</sup>

### 상황 평가

- '25년 3월 H5N1형 인체감염 세 번째 사례(3세 남아, 사망)가 보고된 이후 이번에 네 번째 사례가 발생하여 캄보디아 보건당국은 대중에게 AI 인체감염 의심증상(발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발생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고
-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AI 인체감염이 보고된 적은 없으나 해외에서는 조류 등에 의한 인체감염 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캄보디아에서 '25년 3월 H5N1형 인체감염 세 번째 사례(3세 남아, 사망)가 보고된 이후 이번에 네 번째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대중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함<sup>1)2)</sup>
  - 보건당국은 발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고 증상이 나타나기 14일 이내 병들거나 폐사한 가금류와 접촉한 적이 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즉시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권고함
-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AI 인체감염이 보고된 적은 없으나 해외에서는 조류 등에 의한 인체감염 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sup>3)</sup>
  - 야생조류, 가금류, 길고양이 등의 사체, 분변 등에 가급적 접촉자제를 당부함. 특히,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자는 살처분 이후 10일 이내 결막염, 발열, 근육통,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도록 권고함

1) Cambodia logs fourth fatal H5N1 avian flu case of the year (CIDRAP, '25.5.27.)

2) 보도자료 | 11세 소년 조류독감으로 사망 (캄보디아 보건부, '25.5.27.)

3) 보도자료 | 24-25절기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감시 강화 (질병관리청, '24.10.30.)

추가 정보 및 알림사항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연장!

**질병관리청**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연장!**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질병을 이길 병으로**

**1 접종대상** |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2025** **2 접종일정** | 2025.5.1.(목) ~ 6.30.(월)

**3** **3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4**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 2 방문자의 곁을 지나갈 때 모두 마스크 착용
- 3 손소독 용 개인위생 수칙 준수
-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2025.5.23.



**일상 속**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고위험군**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을 받아주세요!

- !** 국내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인근 국가의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 다만 여름철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일상 속 예방수칙 실천과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당부드립니다.
-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호흡기 증상 시  
병원 진료받기



고위험군 코로나19  
예방접종 받기

「전 세계 감염병 동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 감염병소식 > [주간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